

# 차별과세로 無鉛化 촉진하는 유럽 휘발유시장

**최근** 유럽에서는 無鉛揮發油의 시장점유율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는 無鉛휘발유 사용을 지지하는 차별과세, 납함유량규제의 강화, 무연휘발유전용차량의 증가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90년에 유럽의 無鉛휘발유 점유율은 평균 30% 이상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0년 4월 현재 無鉛휘발유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서독,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이 50% 이상,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등의 40% 이상, 영국, 노르웨이 등이 30% 이상으로 되어 있다. '89년에 無鉛揮發油 점유율 50% 이상의 국가는 서독과 핀란드 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럽 無鉛휘발유시장은 급속히 확대되

유럽 휘발유시장의 無鉛화와 差別課稅

	無鉛化 촉진 차별과세		無鉛휘발유의 점유율 (%)	
	(自國通貨/ℓ)	(USC /ℓ) <sup>1)</sup>	1989년	1990년 <sup>2)</sup>
서독	9.10 pfenning	5.40	59	67.3
영국	2.79~3.07 pence	4.8~5.2	19	32.2
프랑스	0.41 franc	7.24	2	10.0
이탈리아	71.00 lire	5.74	2	4.3
스페인	0.00 pesetas	0	0.5	1.0
네덜란드	9.00 cents	4.75	37	40.0
벨기에	1.65~1.88 franc	4.8~5.4	19	25.0
덴마크	0.69 krone	10.76	41	56.0
포르투갈	6.20 escudos	4.19	0.5	1.0
스웨덴	0.24 krone	3.94	50	50.0
스위스	8.68 cents	6.09	44	49.9
오스트리아	0.53~0.64 schilling	4.5~5.4	43	46.0
핀란드	0.33 mark	8.21	16	51.0
노르웨이	51.00 oere	7.88	27	35.0

(註) 1) 1990년 6월 평균환율 적용

2) 1990년 4월 현재

3)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1990년 無鉛휘발유의 점유율은 1% 미만임.

(資料) Petroleum Review, Oil & Gas Journal, IFS 등에 의거 작성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0년의 無鉛揮發油 시장점유율의 증가에는 차별과세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저한 신장세를 보인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는 無鉛揮發油의 사용이 촉진되도록 하는 세계상의 유인(차별과세)이 큰 편에 속하였다. 스페인의 경우는 無鉛휘발유의 사용이 촉진되도록 하는 세계상의 유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無鉛휘발유 점유율의 확대가 부진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지역에서 강화되어온 휘발유의 납함유량 규제는 유연휘발유 시장을 위축 시키고, 무연휘발유 사용을 촉진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유럽국가가 납함유량규제기준으로서 0.15 g / l의 적용을 지향하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등도 '91년 6월부터 0.15 g / l의 납함유량규제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독, 영국, 덴마크, 벨기에 등의 국가에서는 머지않아 보통유연휘발유가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촉매전환장치(Catalytic Converters)를 장착한 무연휘발유 전용차량의 보급이 증가됨에 따라 무연휘발유의 사용이 촉진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93년부터 EC 지역에 판매되는 차량에 대하여 이 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등 EC 이외의 국가들도 촉매 전환 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 휘발유시장의 무연화는 국별 또는 EC의 정책으로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차별과세는 향후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국가간 세계의 부조화를 초래하여 EC시장통합에 장애요인으로 될 수 있다. 둘째 납함유량규제의 강화는 유럽정유업계의 설비투자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셋째 촉매전환장치가 장착된 서유럽産 자동차가 동유럽에 유입될 경우 無鉛휘발유의 수요는 더욱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동향)

## 일본어투 표현 순화 자료

• 공장도가격(工場渡價格) / 공장에서 내는 값, 공장값 • 기중(忌中) / 상중 • 기지(きじ, 生地) / 천 • 기합(氣合)을 넣다 / 정신차리게 하다. • 내역(內譯) / 명세 • 내역서(內譯書) / 명세서 • 노견(路肩) / 길어깨 • 다반사(茶飯事) / 예삿일, 흔한일 • 단수(端數) / 우수리, 거스름 • 담합(談合) / 짜다. • 미다시(見出紙) / 찢음표 • 부지(敷地) / 터 • 분주(分株) / 포기나눔 • 뺨꾸(puncture) / 구멍내기 • 빠꾸(back) / 뒤로, 퇴짜 • 사시미(刺身) / 생선회 • 사꾸라(さくら) / 벚꽃 • 수주(受注)하다 / 주문받다 • 신병(身柄) / 몸체, 신분 • 신병인수(身柄引受) / 사람넘겨받음 • 십장(什長) / 감독, 반장, 조장, 작업반장 • 십푸(濕布) / 짚질

• 아국(我國) / 우리나라 • 역할(役割) / 소임, 구실, 할일 • 오야(親) / 우두머리, 계주 • 오차(お茶) / 차 • 와리깡(割勘) / 나눠내기, 각자부담 • 와꾸 / 틀, 테두리 • 요오지(楊枝) / 이쭉시게 • 이서(裏書) / 배서 • 우와기(上衣) / (양복) 저고리 • 운전수(運轉手) / 운전사 • 자부동(座布團) / 방석 • 취입 / 녹음, 붙여넣기 • 곤색(紺色) / 감색 • 곤조오(根性) / 근성, 본성 • 쿠사리(腐り) / 면박 • 단스 / 장롱, 옷장, 차단스 • 덴뿌라 / 튀김 • 파지(破紙) / 흙종이, 종이부스러기 • 하물(荷物) / 짐 • 히야시(冷やし)하다 / 채우다, 차게하다